ECONOMIC FOCUS

2024. 4. 25

삼성증권

Global Macro Team

정성태
Senior Economist
sungtai.chung@samsung.com

금종호
Economist
jongho.keum@samsung.com

한국 1Q GDP

성장률 전망 2.7%로 상향; 10월 첫 금리 인하 전망 유지

- 수출과 제조업이 견인하며, 1Q 성장률은 당사 예상을 크게 상회한 3.4% 기록. 반면 소비, 건설 투자 등 내수는 성장 기여도 -0.4%pt를 기록하며 부진 지속
-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 10월과 11월로 유지. 1) 수출 호조 속 내수 부진 심화, 2) 연준 9월 첫 금리 인하 예상, 3) 소비자물가 하반기 2.5% 둔화 예상 등이 주된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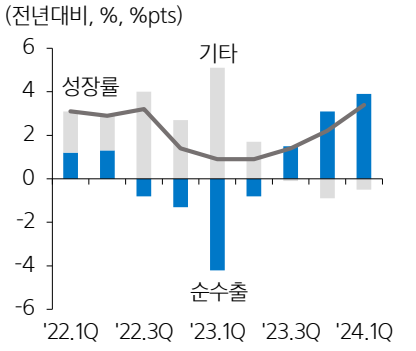
'24년 1Q 한국의 GDP는 전년 대비 3.4%(전기 대비 1.3%)를 기록하며, 당사 및 금융시장 예상인 2.4%를 크게 상회했다.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7.1%, 수입은 -0.8%를 기록하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3.9%pts를 기록한 영향이다. 반면 내수는 민간소비(전년 대비 1.1%), 설비 투자(0.6%), 건설 투자(-0.6%) 등이 부진하며, 성장 기여도는 -0.4%pts를 기록했다. 그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은 전년 대비 6.6%를 기록했으나, 건설업은 -0.6%, 서비스업은 2.1%로 부진했다.

'24년 연간 한국 성장률 2.7%로 상향; 한국의 금리 인하 전망은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유지

당사는 예상을 상회한 1Q 성장률을 반영하여, '24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.4%에서 2.7%로 상향한다. 다만, '09년 1Q 이후 가장 높은 순수출의 기여도는 축소되면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. 물론, 1Q GDP에서 확인된 제조업과 수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며, 현재 추정된 4월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도 13.7%로 예상되어 연간 전망의 상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. 반면, 4분기 연속 (-)를 기록한 재화 수입의 감소 폭은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점차 축소될 것이다. 한편,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 유지로 소비와 건설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. 특히, 민간소비는 1Q 전년 대비 1.1%를 기록하며 '23년 2Q(0.2%)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으나, 서비스 수출입의 성장 기여도(-0.6%)를 감안하면 해외여행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. 실제로 1~2월 한국의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50.6%를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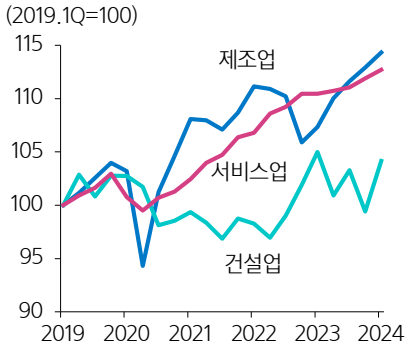
한편, 당사는 한국의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의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유지한다. 이는 1) 한국의 성장이 전적으로 수출에 비롯되며, 소비와 투자는 부진하고, 2)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전망하며, 3)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2.5%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.

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확대



참고: 전년 대비 기준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제조업 vs.건설업 및 서비스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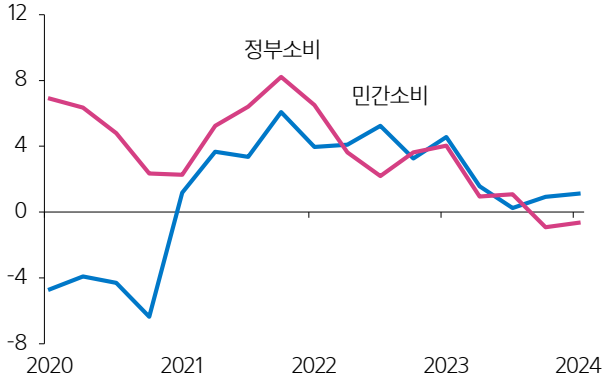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한국 부문별 소비 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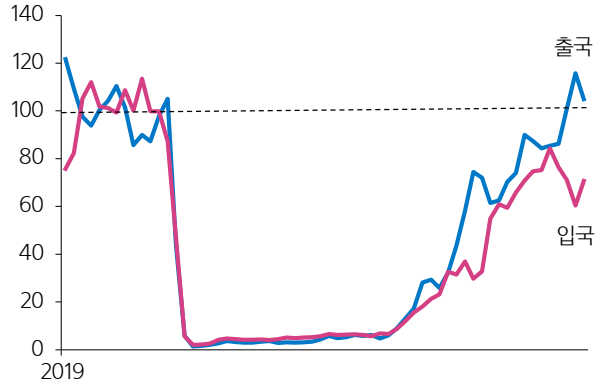
(전년대비, %)


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한국 출입국자 수 추이

(2019=100)



자료: 한국관광공사, 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Member of
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